

# 후보 공개 검증... '담합·나눠먹기' 오명 해소

## ■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회의 규칙 개정안' 통과

### 11일 선거부터 적용... 상임위장도 후보등록 후 정견 발표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방식을 이른바 '교황식'에서 '입후보 및 정견 발표제'로 바꾼 것은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 나눠먹기·밀실담합식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추진 과정=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등의 절차를 도입하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애초 시의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찬성측과 반대측 의원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은 유재신·송재선·조호근·조광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2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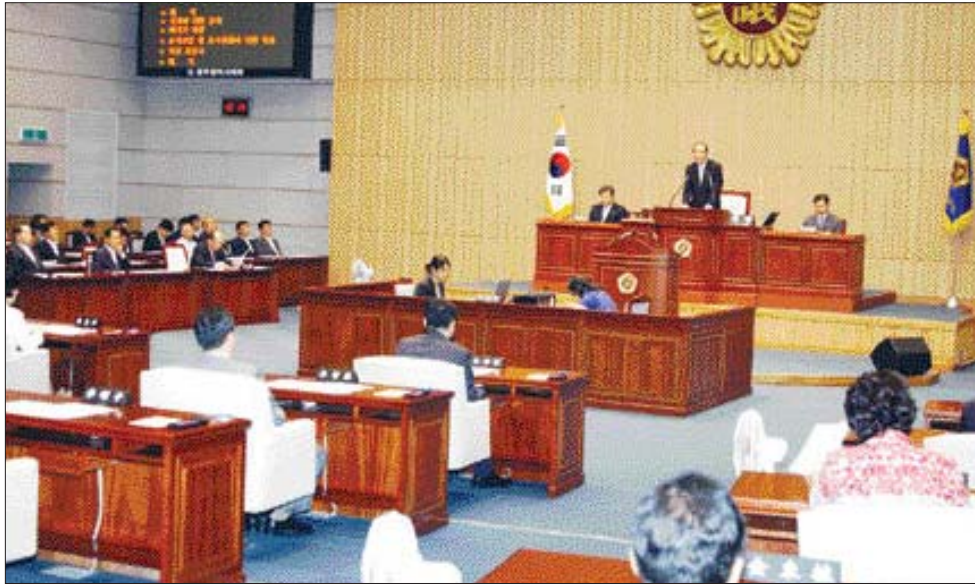
반대측은 "참고서 바꾼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 담합, 나눠먹기 등 기존의 부작용에 외부 압력, 다수와 독식 등 또 하나의 폐단이 생길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찬성측은 "이제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할 일이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찬성측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71조)는 규정과 부산시의회는 비슷한 절차를 도입해 별문제 없이 선거를 치렀다는 점을 내세우며 맞섰다. 결국, 공개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후보자가 공약을 내걸고 의회를 투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 만장일치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운영위의 개정안 통과에 앞서 언론과 광주경실련·광주YMCA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장단 선출 방식 변경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의장단 선출 방식을 바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돼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게 됐다.

안건을 발의한 유재신 의원은 "애초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던 의원들 사이에도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분



광주시의회는 1일 제 1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 제공>

위기가 막판에 조성됐다"면서 "이번 규칙개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떻게 바뀌나=이번 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일 치러질 하반기 의장단 선거부터는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을 전인 8일까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피선

거권을 갖게 된다. 또 투표 시작 전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도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는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된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의장 선거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례회가 끝난 뒤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의회장 연임 도전 '공방'

나중천 의원 "정치 도의상 문제 있다"

강박원 의장 "자질·경륜 먼저 갖춰라"

광주시의회 유력한 의장 후보 중 한 명인 나중천(민주·남구2) 의원이 연임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강박원 현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 오는 11일 예정인 하반기 의장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나 의원은 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대한민국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룩하는 등 성과가 많았음에도 몇몇 동료의원들의 사건과 사고로 의회 무용론과 자질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장단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그런데 벌써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도의' 문제가 거론되고 '연임 도전은 유례가 없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고 강 의장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정치인은 남이 모르는 자신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의장의 위치와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면 이제 의원평등주의나 기회균

등원칙에 따라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배려하는 것이 지식인의 소양이 아니냐"고 했다. 상반기 의장 선거에서 1표 차로 의장직을 내줬던 나 의원이 강 의장에게 사실상 의장에 다시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강 의장은 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여기서 답변하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양식이 의심되는 요구다"고 맞받아친 뒤 나 의원의 '의장단 책임론'을 반박했다.

강 의장은 "의원 전체의사를 총괄해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회 무용론에 대한 무대응이 의장단의 책임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 그는 또 "(의장은) 통합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자질·능력·경륜을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며 나 의원에게 맞대응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시의원 성폭력 '진실 공방'

피해여성 "사실 아니다" 여성단체 "고소 왜 했나"

광주시의회 모 의원의 성폭력 논란을 둘러싸고 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단체와 피해 당사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언쟁을 벌이는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제170회 광주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본회의장 앞에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회원 10여명이 성

폭력 논란을 빚은 모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나타나 "왜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여성단체에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며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지 여성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 여성은 이에 앞서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자필 해명서를 통해 "제가 고소했던 내용 중 일부는 과장돼 있으며 남자친구의 추궁에 억울한 심정을 표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고소가 있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인데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제보가 있었고 현역 시의원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그에 대한 도덕성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산구의회 의장 박석원씨

### 순천시의회 의장 박광호씨

### 광양시의회 의장 장명완씨

### 구례군의회 의장 박민순씨



〈박석원 의장〉 의장에 김대희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은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체 22표 중 12표를 얻어 10표를 획득한 조용훈(57)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박광호 의장〉 광양시의회도 이날 하반기 의장에 장명완(61) 의원, 부의장에 배학순 의원을 선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전체 12표 중 8표를

〈장명완 의장〉 얻어 4표를 획득한 이돈구(66)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다.

〈박민순 의장〉 한편 구례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박민순(60) 의원, 부의장에 서은식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전체 7표 중 4표를 얻어 3표를 획득한 김영(61)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광산·순천·광양·구례기원대·김진수·김준호·김동호기자dhkim@

## 현장과 시각

### 선도기업협회 기대 크다



이종태

경제부 부장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판매·인력난 등 구조적인 질곡 때문에 경영난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진 광주·전남 선도기업 협회 김보곤 회장은 협회결성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회원 모두가 회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점차 힘들어지는 국내의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회원 기업 모두가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가 발매한 홍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경제단체'가 탄생하는구나, 하는 어수선한 심경을 뒤로하고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고(高)유가, 고(高)원자재, 고(高)임금...소위 '고고춤'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가는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상식을 진리로 떠받들었

기 때문이다.

선도기업협회가 내놓은 '공약'을 두고 또 한번 환호하고 싶다. 간관이 얘기하듯, 혁신형기업이나 수출유망기업을 회원자격으로 한정할 것도 그렇지만 협회의 활동중심을 10개 분과위원회를 둔 것도 앞날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진용출 파파스 대표는 "분과위원회는 대기업과의 관계, 제품 판매, 기술개발 등 갖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선봉장"이라며 "이런저런 단체에 회비만 내고 '관리 위에 잠자는' 구태는 사양하고,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런 구태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조직과는 달리 방대한 정책자문단, 운영자문단의 구성도 뜨거운 열의를 느끼게 한다. 중소기업청 등 10여개 기업지원기관이 포진한 정책자문단, 각 대학과 연구기관을 망라한 운영자문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협회의 '게으름'을 질타하게 된다.

김보곤 회장은 "회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제품생산과 판매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광주·전남 선도기업 협회의 출범을 축하한다. 그러나 회원들 저마다 '이름만 걸여놓고 개점휴업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곁들이고 싶다.

회원들은 일본의 제조업이 15년 불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 모임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한 우물'을 파고 개선(改善)을 뜻하는 '가이젠 문화'로 무장한 일본의 중소 제조업이야말로, 오늘날 최고의 일본을 만들어낸 '장장한' 하부구조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jtlee@kwangju.co.kr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 아큐-체크이 유럽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등수권관리 신청부터 등판, 가류-복을 2008~2009년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로...  
 회원이 주선 고객 혜택을 감사드리며, 정치는 생명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5년 연속 국내판매 1위 기념 아큐-체크 고객 감사 이벤트!

이벤트 1차: 등수권 관리 서비스 제공...  
 이벤트 2차: 등수권 관리 서비스 제공...

1644-0119